

근현대 불교 개혁 경허부터 휴암까지

계간 '불교평론' 통권 50호 기념 특집호서 집중 조명

계간 <불교평론> 제50호에서 이종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는 “경허 선사(1849~1912)의 수선결사는 당시 교학 중심이었던 불교계를 선 수행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결사가 일제강점기 선학원 운동으로 발전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종수 HK연구교수는 “경허 선사의 수선결사를 통한 개혁운동은 한국불교 전통이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계승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허우성 덕성여대 교수는 대각교운동을 통해 대각사상을 펼친 용성 스님(1864~1940)의 구세의 욕구가 자아완성의 욕구만큼이나 치열했다고 평가했다.

허우성 교수는 “용성이 탄식했던 ‘불교 멸망의 시대’는 여러 가지 정치적 원인의 결과였다”며 “오늘날 정관(正觀)하는 용성의 눈을 빌려서 한반도 주변의 전하대세를 관찰하고 나라와 불교를 함께 지키는 방향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석전 박한영(1870~1948)의 불교강사론과 불교개혁의 지향점을 살폈다. 박 교수는 “석전은 미래 불교의 새로운 씨앗을 가꿀 청년 세대의 사명이 실로 막중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삼아 교육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의 중심축으로 삼고자 했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박병기 교수는 “불교개혁의 첫 단추는 승가교육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며 “▷석전의 불교강사론 수용 ▷청년불자 및 일반인들을 위한 흥법의 장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조계종이 추진 중인 종교평화선언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추진 중인 일로 관계(官制)를 의심해 한다”고 말했다.

이들 박 교수는 만해(1879~1944)의 눈을 빌어 “불교와는 다른 진리관이나 이웃 종교를 인정하는 태도는 불교 교유의 진리관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 속에서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요, 이러한 자세는 화두라는 최고 방편을 통한 선수행을 통해 수행자 개개인이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만해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남겨놓은 유산이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서울대 외래교수는 전통강원 교육과 근대적 불교교육의 과도기를 살다 간 권상로(1879~1965)에 집중했다. 이 외래교수는 “권상로 불교개혁론은 불교 현실에 대한 철저한 비판 의식이 전제되고 있다”

며 “권상로는 정신교육과 불교 단체 단합을 통한 역량 결집과 교육제도 개혁을 통한 인재 육성을 도모하려 했다”고 말했다.

장진영 원불교 교무는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1891~1943)은 암울한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잃지 않고 정신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는 “이영재(1900~1927) 스님의 불교혁신론이 1929

수선결사 통해 전통 이은 경허

구세 욕구가 성불에 우선한 용성

청소년에게서 미래불교 본 석전

년 승려대회에 일정한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경집 진각대 교수는 진각종 회당 손규상(1902~1963) 정사를 조명했다. 회당 정사는 불교가 발전하려면 일원적인 불교를 넘어 종파가 분파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원화를 교단의 분열이 아닌 불교의 발전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회당은 기존 질서 파괴가 아닌 새로운 변용으로 개혁의 가치를 찾았다”며 “생활불교·실천불교의 새불교운동을 통해 회당이 추구한 것은 인간성심의 회복이었고,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실천이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권상로는 불교 현실 투철히 비판

회당은 다원화에서 발전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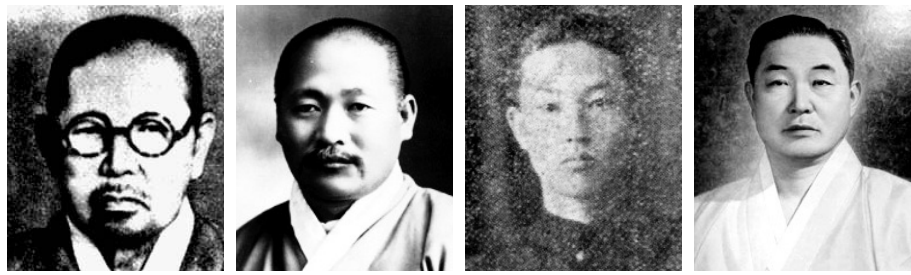
성철은 불교 정체성 최우선 강조

는 성철(1912~1993) 스님은 과학적 사고의 수용, 미신적 신앙의 부정, 승려교육제도의 현대화 등 이른바 현대성을 추구하는 한편, 불교 전통을 보구하려는 근본주의를 추구했던 선사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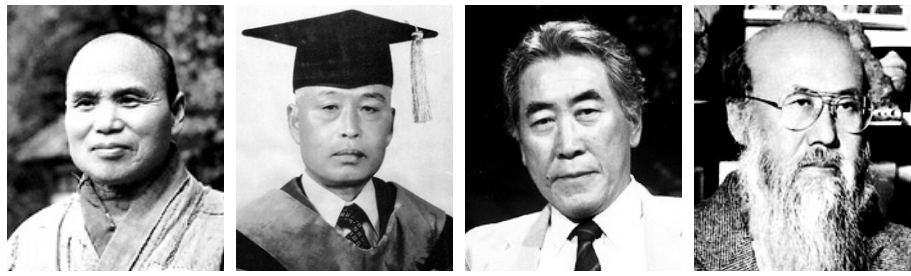
김 교수는 “성철 스님은 불교의 정체성 확립 없이는 불교의 대사회적 실천도 불가능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종교가 정치 이념의 산실이 돼야 하고, 종교가 정치를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고, 세속을 불교화시켜야지 불교가 세속화하면



경허 스님 용성 스님 박한영 만해



권상로 박중빈 이영재 손규상



성철 스님 황성기 이기영 서경수



통권 제50호를 기념해 특집호로 한국 불교 개혁을 진단한 계간 <불교평론>



광덕 스님 휴암 스님

불교가 죽는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수는 고봉 황성기(1919~1979)를 조명했다. 하 교수는 “고봉 황성기는 중생구제·사회정화·자아완성 등 육도만행을 강조했다. 그의 철학적·사상적·실천적 기반이요 개혁사상의 토대는 보살·대승불교였다”고 설명했다.

고봉은 “선만이 유일한 불교수행 방법이요, 다른 것은 외도 것이라는 이론만으로 불교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실천(보살행)이 없는 공리공론은 한 푼의 가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민우 한국불교연구원장은 “불교유신과 관련한 사항들, 곧 근대화를 거치면서 우리 전통사회가 겪는 문제점들이 이기영(1922~1996)·서경수(1925~1986) 박사에 가서 그대로 제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서 박사가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자본주의적 체제, 빈부 격차와 계층 간의 갈등

에서 유래되는 분배의 문제 등이 결국 보살의 이타적 행위이며 부처님 말씀의 현장에서의 재해석이 필요함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청보리회 김재영 법사는 “광덕(1927~1999) 스님의 불광사상·불광운동을 일관하는 기본적 동기는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사회의식이었다”라며 “광덕의 불광사상·불광운동은 우리 시대 개혁운동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휴암(1941~1997) 스님은 ▷교육개혁 ▷출가제도 개선 ▷문중 개념 타파 ▷법회 중심의 사찰 운영 ▷사찰 수입 공공화 등을 주장했다”며 “이는 현재 한국불교계가 추진 중인 개혁과 변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동섭 기자 oetana@hyunbul.com

붓다와 서양철학자들이 만난다면?

불광아카데미, 초기불교 및 불교인문학 강좌 개설

서울 불광사(회주 지흥)는 4월 11일 불교를 심층적으로 교육하는 불광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불광아카데미는 인접학문과의 대화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인문강좌, 불교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한 불교원전학습을 위주로 진행된다. 개강 첫 학기인 올해 봄에는 인문강좌 ‘붓다와 서양철학자의 대화’와 각목 스님의 ‘아비담마 길라잡이’, 목경찬 교수의 ‘유식사상’ 강좌가 개설된다.

‘붓다와 서양철학자의 대화’ 강좌는 12주 동안 불교사상과 서양의 대표적인 철학자를 비교 고찰한다. 불광연구원에서 기획한 강좌는 근현대 철학자 12인을 중심으로 ‘불교적 관점에서 보는 서양철학’, ‘서양철학의 관점에서 보는 불교’라는 교차접근을 통해 불교에 대한 철학적 깊이를 더하고 불교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에서는 칸트 니체 하이데거 비트겐슈타인 화이트헤드 융 마르크스 등 근대

서양사상가와 자크 라캉, 데리다, 들뢰즈, 메를로 뽀피 등 현대철학의 대표적 사상가들이 초대된다. 강좌는 이들 철학자들의 주된 관심과 비교되는 불교사상가를 등장시켜 진행될 예정이다.

칸트와 융은 유식불교와 비교하고, 비트겐슈타인과 니체는 중관사상가 비교되는 식이다. 원효 스님은 데리다와 비교의 상에 놓이게 된다.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들 역시 김형호 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해당분야 있어 국내외 권위 있는 연구자들을 초청했다.

불교원전학습으로는 아비담마와 유식사상을 개설한다. 아비담마길라잡이 강의는 초기경전을 번역하고 있는 각목 스님이 4월 2일부터 10주과정으로 매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저녁 7시30분 직접 강의한다. 최근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은 니카야에 대한 입지를 넘어 주석서에 대한 관심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초기불교의 이해의 권위 있는 주석서를 읽어 나가는 강의로 기획되었다. (02)417-2551

조동섭 기자

“밝은 정치 기원 담았습니다”

승례문 상량문 지은 성태용 교수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3월 8일 국보 제1호 승례문 상량식을 거행했다. 상량문의 하이라이트격인 상량문은 2500여 자의 한글로 이뤄졌다. 불자 성태용 교수(건국대)가 지은 것이다.

성 교수는 지난 2월 초 문화재청 승례문복구팀의 청탁을 받고 상량문을 짓기 시작했다.

과거 공궐 건축물 등 국가 주도 대형공사에서 상량문은 당대의 저명한 문인·학자의 몫이었다. 수원 화성의 복궁 수문인 화홍문(華虹門)의 상량문은 학자군주였던 정조가 썼고, 고종 때 중건한 광화문 상량문은 훗날 영의정에 올랐던 문인 이유원이 지었다.

성 교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곧장 서예가 정도준 선생과 승례문 복구현장을 찾았다. 글을 쓰기 위해 현장을 보고 느낌을 갖기 위해서였다. 연구실로 돌아온 그는 옛문집에 나온 상량문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고 글을 지었다. 꼬박 20일이 걸렸다. 부담감에 잠잠을 설치기도 했다.

성태용 교수는 승례문 상량문에서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잇고 지냈음을 반성하고 승례문 복구를 계기로 새롭게 문화가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가자는 내용을

담았다.

성 교수는 상량문에서 “은 국민의 사랑을 받던 승례문,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었다.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소홀하게 방치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승례문이 몸을 태움으로써 보여준 경계를 받아들여 승례문을 온전한 모습으로 되살려냄으로써 문화정당의 밝은 내일을 일구어내는 계기를 이루자”고 했다.

성태용 교수는 승례문의 의미를 남쪽이 상징하는 ‘밝은 정치’와 ‘예’로 정의했다.

성 교수는 “통치자가 남쪽을 향해 정사를 볼 것은 밝은 정치를 펼친다는 의미였다. 밝음을 상징하는 남쪽의 문인 승례문을 복구하면서 밝은 정치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성태용 교수는 ‘예’는 오늘날 ‘문화’와 같은 의미라고 했다. 그는 “경제논리만 강조하는데 이제 인문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라면서 “남대문이 소신(燒燼)했다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쓴 이유”라고 설명했다.



2012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International Buddhist Culture & Industry Exhibition 2012

일시_ **2012.03.16** | 금 ~ **03.18** | 일 **3**일간

장소_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주 최 | 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 **Expert (주)엑스퍼트**

후 원 | 2012 여수세계박람회불교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호남 6교구본사, 태고총림선암사

참가문의 | 2012국제불교문화산업박람회 사무국 062-383-6322